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2 Number 02 02 2014

창세기 1장(15)

다섯째 날 새의 창조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21)

20, 21절에서 새(fowl, KJV)는 모든 나는 동물을 지칭한다. 즉 새, 곤충, 박쥐(포유류) 등이 포함된다.

새들은 알을 낳는다. 그런데 이 알이 정말 놀랍다. 알은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쉰다. 그래서 달걀 껍질을 현미경으로 보면 수천 개의 구멍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구멍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쉴 수 있는 완벽한 크기이다. 그뿐 아니라 내막, 외막,

공기 주머니, 흰자와 노른자… 이 중 하나만 잘못되어도 병아리로 부화될 수 없다. 과연 이 경이적인 달걀을 닭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닭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가? 만약 전자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이 달걀을 자연주의 속에서 설명하려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본 것만 가지고 설명하려는 것이 자연주의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능하다는 의미를 어려운 수학시험이나 컴퓨터 조립에 만점을 받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전능하다는 것은 못하는 것이 전혀 없는 분에게 붙이는 칭호다. 닭이 먼저일까? 아니면 달걀이 먼저일까? 이 질문은 자연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대답할 수 없다. 닭이 없는데 어떻게 달걀이, 달걀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그러면 닭은, 달걀은… 끝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주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너무 쉽다. 달걀 낳는 닭이 먼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처음은 달랐다. 우리에게는 처음이 너무 선명하다. 전능하신 분을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선명한 시작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처음은 달랐고, 이렇게 다른 처음을 자연주의적 사고로 알려고 하면 알 수도 없거니와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처음부터 좋았다. 처음부터 동물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처음부터 해 달 별은 완벽한 위치에 창조되었다. 첫 남자는 흙으로 창조되었고, 처음부터 말할 줄 알았다. 첫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역사과학을 하면서 자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과거를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을 배제한 나 홀로 탐정의 탐정소설과도 같은 것이다.

바닷새 중에 어떤 바닷새는 바위 위에 알을 낳는데 이 알은 절대 바위 밑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는다. 이 알은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작은 원을 그리며 제자리에서만 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원추형 곡선의 방정식을 알고 계신 분의 지혜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박쥐는 자기가 입으로 내는 초음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오는 소리를 레이더와 같은 모양의 귀로 잡아 물체를 식별한다. 과학자들이 깜깜한 방에 타이어를 채워놓고 6시간 동안 비행을 시켰지만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다. 이 기술을 익히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또 그 기술을 자식에게도 가르쳐야 했을 텐데…

벌집은 육각형으로 이루어져있다. 최소한의 부피와 질량으로 가장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육각 기둥이다. 벌들이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짓다가 육각형으로 바꾸었을까? 그렇다면 그런 모양으로 집을 짓는 벌들이 어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벌들은 하나같이 육각형으로만 집을 짓는단 말인가? 기

하학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의 지혜다.

벌새는 1초에 80번의 날개 짓을 한다. 어떤 딱따구리는 총알과도 같이 1분에 수천 번 나무를 쪼아댄다. 독수리는 찰라 같은 수십 분의 1초 만에 물고기를 낚아챈다. 서부 농병아리는 헤엄을 치지 않고 날개를 치면서 물 위를 뛰어다닌다. 키위는 자기 몸의 반만한 알을 낳는다…. 새들의 놀라운 생태 역시 끝이 없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을 들어보라. 감히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질문하실까? 이분께서 그것들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욥 39:26)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욥 39:27)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욥 38:41)

진화론자들은 타조를 보고 예전에는 날았었는데 뚱뚱해져서 날지 못하게 됐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 살을 빼면 언젠가 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역시 자연주의적인 해석이다. 분명하게 새를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타조를 보며 타조는 예전에 날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날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진화론적인 발상인 것이다. 이제 깨달아 알려고 하지 말고 타조를 지은 분의 말씀을 들어보라. (욥 39:13–18)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타조는 결코 날지 못한다는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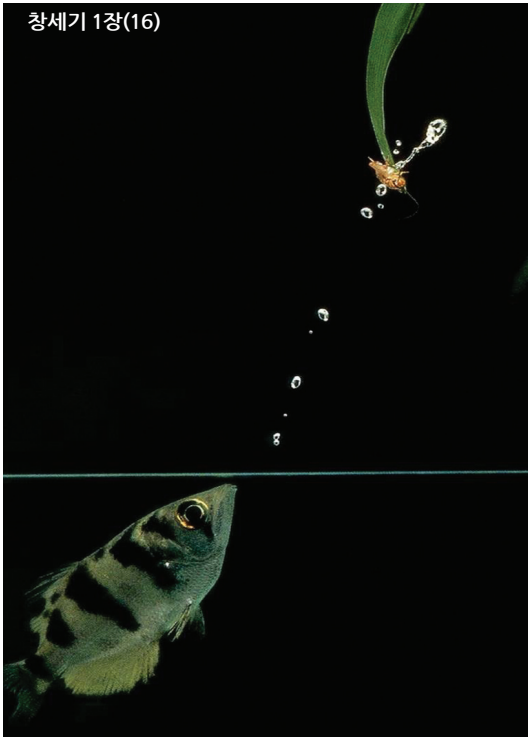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타조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아느냐는 질문.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자신이 타조를 그렇게 어리석게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답변.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타조는 날도록 지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뛰도록 지었다는 결론!

이 이상의 답이 어디 있을까? 분명히 이분 만이 타조의 창조자시다. 우리는 완벽한 새들을 보며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의 전능하심만을 인정할 뿐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20, 21)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지구 밖의 별들을 창조하신 후, 다시 대상을 지구로 향하여 동물들을 창조하신다. 성경에서 최초로 생물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이 부분은 식물

다섯째 날 물고기의 창조

을 창조하시는 '셋째 날'에서 이미 다루었다. 물고기와 새도 역시 식물과 동일하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즉 서로 교배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셨다는 의미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동물은 큰 바다 짐승이다. 이 짐승은 히브리어로는 탄닌(tannin), 영어로는 great whale(큰 고래) 또는 great sea-monsters(큰 바다괴물)이라고 한다. 이 짐승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20번 이상 등장하는데 시랑, 용, 뱀, 등으로 변역 되었다(출 7:90; 시 44:19, 74:13, 91:13, 148:7; 사 13:22, 27:1, 34:13, 35:7, 43:20, 51:9; 렘 9:11, 10:22, 14:6, 49:33, 51:34, 51:37; 겔 29:3, 32:2). 어쨌든 지금은 살지 않은 바다의 큰 동물임에 틀림없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동물이 작고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고 큰 물고기부터 언급되는 것을 보면 마치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변했을 것이라는 진화개념을 나무라시는 것 같지 않은가?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은 무엇일까? 바로 바다에 살고 있는 고래다. 이 고래들 중에서도 청고래가 가장 큰데 이 놈은 몸길이가 32m에, 무게는 무려 190톤에 달하며, 심장만해도 작은 승용차 크기이다. 고래의

귀와 눈은 육지의 포유류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 모양은 바다에서 듣고 보기에 알맞게 생겼다. 어미 고래는 물 속에서 새끼들에게 젖을 주기 위한 고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새끼의 주둥이도 어미의 몸과 잘 조화되어 있어서 새끼가 어미 젖을 먹을 때 결코 짜디 짠 바닷물이 섞이지 않는다. 진화론자들은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와 포유류로까지 진화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물 속으로 돌아가 물에 적응하여 고래로 진화되었다고 한다. 과연 이 완벽한 고래가 그런 과정으로 이 모습을 갖추었단 말인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쓴다는 것은 지면의 낭비일 것이다.

물총고기라는 물고기는 물 아래 수초에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 나뭇가지에 있는 벌레를 물로 쏴서 떨어뜨린 다음 곧바로 잡아 먹는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물총고기의 눈은 물 아래 있으며 벌레는 물 밖에 있기 때문에 물과 공기의 굴절률의 차이를 계산할 수 없으면 목표물을 적중 시킬 수 없다. 그러나 물총고기는 그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을 알고 있기에 놀랍게도 목표물을 명중시킨다.

캘리포니아 해변을 찾아오는 물고기 중에 그루니온(Grunion)은 보름날 밤 물이 육지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리 때 육지 모래사장에서 알을 낳는다. 그리고 다음 사리 때 바닷물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갓 부화한 새끼들은 바닷물과 함께 바다로 가게 된다. 이 때까지 알은 정확하게 2주 동안 모래 속에서 부화의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루니온이 사리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모래 사장에 올라오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알들은 부화의 기회를 얻지 못해 결국 이 물고기는 멸종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해파리는 우산과 같이 생긴 독특한 모양의 덮개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물속에서 이동한다. 낙지는 자신의 색깔을 변화무쌍하게 변화시켜 적들이 주위 환경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등이다. 전기 뱀장어는 레이더를 이용해 먹이를 잡으며 300볼트의 강한 전기 충격을 계속해서 발생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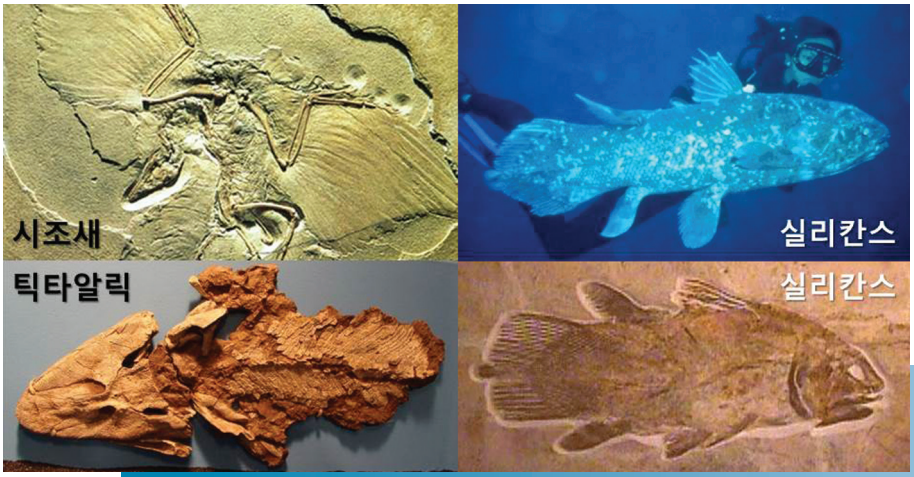
어디 이뿐이랴 물고기들의 놀라운 생태를 이야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이 물고기들을 보며 우리도 욥의 고백 외에는 할 말이 없는 듯하다.

"바다의 물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욥12:8, 9)

지금까지 그 어떤 생물학적 실험도 단 한 종의 어류조차 다른 종으로 변화시킨 적이 없다. 창조자가 세워놓은 "종류"라는 질서가 깨어지는 것도 보지 못했고 깨뜨려 본 적도 없다. 이 완벽한 모습은 시간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다. 오직 시공간을 초월한 전능자 외에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재만(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중간화석의 자격

"그들은 우리가 중간화석(intermediate fossil/ missing link)을 제시하면 또 다시 그 중간화석과 진화 상태 사이의 또 다른 중간화석을 내 놓으라고 우긴다." 진화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창조론자들에게 진화론을 옹호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불평들 중에 하나다. 이것은 진화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오해들 중 하나로, 진화의 증거로 제시 되는 중간화석은 각 종류 사이의 중간 쯤 되는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간화석의 자격은 불완전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 있어야 한다. 완전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을 가진 생명체들은 '완전한 창조'를 주장하는 창조론의 증거들이기 때문이다.

진화가 사실이었으면 무척추 동물에서 최초 척추동물이라고 주장하는 물고기 사이에 완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중간형태가 있어야 하고 이 기간이 약 1억년이라고 하므로 엄청나게 많은 중간화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척추동물 화석이 전체 화석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이 나와야 할 무척추동물과 물고기 사이의 중간화석 비슷한 것도 없다. 그러므로 어류-양서류, 양서류-파충류, 파충류-포유류 혹은 조류의 중간화석은 발견 될 기대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적극적인 진화의 증거는 아닐지라도 기능이 퇴화 된 흔적기관이란 것을 고안해 진화를 지지하려 했지만 기능이 없는 흔적기관이란 없다. 결국 1980년 시카고 필드(Field) 박물관에서 있었던 진화학회 이후 중간화석을 찾는 진화론은 포기하고 새로운 진화론인 '단속평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이 등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업데이트 되지 못한 진화론 과학자들이나 진화를 믿는 일반인

들은 중간화석을 운운하면서 가끔 중간화석을 발견하였다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흥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간화석이라고 발표 되었던 모든 화석들은 중간화석의 자격이 없는 것들이다.

비교적 최근 중간화석이라고 보고 된 틱타알릭(Tiktaalik)과 오래 전에 보고 된 실리칸스(Coelacanth)의 화석은 완전한 물고기 화석이다. 그 어디에도 물고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다. 큰 지느러미에 뼈가 붙어 있는데 그것을 양서류의 다리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수영을 위한 완벽한 장치다. 실리칸스는 지금도 가끔 잡히고 있다. 아직도 진화하지 못하고 4억년 동안 중간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완전한 물고기일 뿐이다.

조류의 중간화석으로 유명한 시조새(Archaeopteryx)는 어떤가? 지난 2003년 영국과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닭에 이미 들어 있던 유전자를 깨워 이빨이 나게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호애친이란 새는 지금도 날개에 갈퀴가 있다. 시조새에게 완전한 이빨과 완전한 갈퀴가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에게조차도 시조새는 멸종한 완전한 새로 여겨지고 있다. 시조새는 완전한 기능이 없는 구조를 가진 중간화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한 종류의 완전한 새다. 날개달린 공룡을 만들려는 시도는 진화의 믿음이 유일한 이유다.

오리너구리는 왜 중간 생물이 아닌가? 오리너구리는 새의 부리, 물갈퀴, 그리고 알을 낳는다. 그러나 몸은 포유류의 특징인 털로 덮여 있고 새끼에게는 젖을 먹인다. 파충류 혹은 조류와 포유류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능력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완벽한 기능을 하고 있다.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는 놀라운 창조의 증거다.

또 어떤 진화론자들은 잘 알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지식이 없는 일반을 속이려는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이(variation)를 진화의 증거로 제시한다. 대표적인 예가 갈라파고스 섬의 핀치들이다. 이 핀치 종류는 13종이나 되고 크기도 10–20cm, 무게는 8 –38g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부리 모양과 크기도 달랐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다 변이와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에 의한 결과이지 진화의 증거가 아니다.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하려면 새로운 기능이 첨가 되었거나 유전정보가 추가 되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화석으로 발견되는 600여 종(species)의 다양한 모습의 공룡들도 대부분은 핀치와 마찬가지로 창조 된 50여 종류(kind)의 변이 형태일 것이다.

찰스 다윈은 그의 "종의 기원" 6번째 마지막 개정판에서 이렇게 고민하며 생을 마감했다. "왜 지층 속에는 중간화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진화가 사실이라면 수억 년 동안 살았던 중간 모습의 화석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발견되는 화석의 현실은 지금과 똑 같은 모습 아니면 멸종 된 완전한 생명체들 뿐이다. 다윈은 너무 늦기 전에, 창조자를 만나기 전에, 돌아 왔어야 했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ITCM / 창조과학탐사 / 강의 / 집중세미나

ITCM

지난 12월 29일부터 시작 된 제 5기 ITCM(창조과학 집중훈련)에 7 명의 헌신 된 청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훈련기간은 2월 21일까지입니다. 참석자들과 인도자들(이재만 부회장, 최우성 박사, 노휘성 사모)이 하나님께 잘 사용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샌디에고 한빛교회 창조과학탐사

지난 12월 23-25일 샌디에고 한빛교회(담임목사 정수일)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한빛교회 창조과학탐사는 매년 연말이면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 ITCM 참가자들의 나눔의 시간

에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떠났기에 더욱 뜻 깊었습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날 그랜드캐년에서 창조 때의 땅과 심판 때의 땅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었는지요.

나성순복음교회

지난 12월 26-28일에 나성순복음교회(담임목사 진유철)에서 중고등부 청년부가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창조탐사는 여러 면에서 기념비적이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139명의 인원이 참석해 버스 세 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영어권 한 대, 한어권 두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인도자도 김선욱 박사, 최우성 박사, 이재만 선교사 전원이 출동했습니다. 나성순복음교회에서는 어른들, 선교사님들께서 참석하셨었고, 그 중요성을 아시고 이번에는 자녀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바라는 순서입니다. 그랜드캐

나성순복음교회 탐사 참가자 전원과 인도자들

샌디에고 한빛교회 탐사 참가자들

년 앞에서 140여명이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요. 그랜드캐년에서 이렇게 많은 창조과학탐사 참가자가 함께 사진을 찍은 것도 기록입니다. 이를 추진해 주신 목사님, 후원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신학교 강의

World Mission Univ (총장: 송정명 박사)는 매 년 겨울학기에 창조와 과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도 12월 9일부터 2주간의 학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봄 학기에는 베데스다대학교에서 지구과학 강의가 열리게 됩니다. 강의는 최우성 박사가 진행 합니다.

Fuller 신학교 창조과학탐사

지난 해 10월 28-31일에 시행 예정이었던 신학생을 위한 창조과학탐사가 연방 공무원들의 무기 휴업에 따라 취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아래와 같이 다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날짜: 2014년 3월 17-20일(월-목 4일간)
출발: LA (정확한 장소는 추후 공고)
경유지: 그랜드캐년, 글렌캐년 댐,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인도: 이재만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참가비: 1인당 $150 (2인 1실)
참가신청 자격: 대학원과정 이상의 신학생 혹은 배우자(자녀는 참가할 수 없음)
신청 마감: 선착순 40명
신청방법: 창조과학선교회(562-868-1697)에 문의 바랍니다.

제 3차 신학생을 위한 집중 세미나

지난 해에 이어 제 3차 신학생을 위한 창조과학 집중세미나가 2월 18-19일(화-수요일)에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다음
일시: 2월 18-9일 (화-수, 오전 9:30분 ~ 오후 4:30분)
장소: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목사:)
강사: 이재만 선교사(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구약학/과학교육학/지질학 석사)
최우성 박사 (창조과학선교회 전임강사, 생리학)

참가자격: 신학생/목회자 부부
참가 인원: 선착순 80명
참가비: $20.00 (2 회 점심 식사와 교재비, 조기 등록자 50명 무료, 부부: $20.00)
연락처: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562-868-1 혹은 hisark@gmail.com)
최영진 목사(626-940-4321)
이현재 목사(626-328-5091)

2013년의 천문학

올해 2013년은 과학이 우주가 수십억 년 동안 스스로 진화되었다는 이론에 도전한 한 해였다. 한 해 동안 발견된 천문학적인 결과들은 가장 가까운 달에서부터 가장 먼 은하까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했다.

만약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거대한 충돌로 40억 년 전에 달이 형성되었다면 달은 틀림없이 마른 뼈처럼 말라버렸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충돌은 모든 광물을 녹여버렸을 것이고 마그마로부터 물이 증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여러 과학자는 일부 달 암석의 일부 광물 안에 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은 달 형성 이론을 반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젊고 물로부터의 달 창조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이다.

달 자기장의 특징들 또한 설계에 의한 젊은 연대를 뒷받침한다. 첫째로, 이론적으로 달 크기만 한 천체의 자기장이 약 1만 년 정도까지만 존재할 수 있는데, 오늘날 달 자기장은 약하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달의 연대는 1만 년보다 작다.) 또한, 달의 암석은 달이 형성되었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보다 더 강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들은 하나님께서 달을 최근에 창조하셨고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장이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지해준다.

금세기의 혜성으로 알려진 아이손 (Ison)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2013년 12월에 장관을 이루는 광경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나사 (NASA)의 12월 뉴스에 따르면, 이 혜성이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대부분 사람이 아이손이 파괴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보고했다. 전문가이든 아마추어천문학자이든 모두 다 어딘가에남겨져 있을 죽은 혜성의 파편들을 찾으려고 조사했다. 이 혜성의 이러한 짧은 생존 연대는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 (ICR)의 기사에 올해 초에 주장한 대로 만약 수십억 년 전에 이것이 만들어졌다면 결코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음을 아이손 혜성 팬들에게 보여주었다.

네이처(Nature) 저널의 2013년 기사 중에 토성의 몇 가지 신비한 것들을 보고한 것

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ICR의 제이크 헤버트 (Jake Hebert)가 어떻게 성경적 창조가 이러한 미스터리를 풀어내는지를 설명했다. 예를 들면, 토성의 고리가 빛나고 매우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연대가 젊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Enceladus)의 연대가 수천 년 이상이라면 여전히 존재하는 간헐천(geyser: 주기적으로 열수가 수증기와 함께 분출되는 온천)을 만들어낼 만한 물질과 에너지는 바닥이 났어야한다. 그리고 토성의 위성 타이탄(Titan)의 대기에는 많은 메탄가스의 소용돌이가 여전히 발견되는데, 태양광은 이 메탄을 일정한 속도로 붕괴시킨다. 이 사실은 이 위성의 연대가 오직 수천 년일 때만 이해되는 내용이다.

2013년 천문학자들은 먼 곳의 우주를 들여다보며 은하들이 빅뱅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신 더 큰 간격을 두고 넓게 펼쳐져 있는 상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방대한 구조는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극도로 먼 거리의 은하들을 완전히 "성숙된"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먼 거리에는 존재할 수도 없는 완벽한 형태의 별들을 완벽한 원소들의 비율을 갖춘 채로 창조하셨다.

세상의 지식은 자연법칙이 수십억 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행성과 별과 은하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적 창조와 2013년의 천문학적 발견들은 단지 수천 년 만에 이 모든 것들이 기적적으로 창조되었음을 입증한다.

Brian Thomas, M.S. (ICR 작가)
번역: 조희천(제 1기 ITCM 수료자, 지구물리학 박사과정)

창조과학 탐사

6/28–7/4, 2013

간 증

하나님의 족집게 과외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목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 목사〈부론교회〉*

이야기로서의 역사로만 알고 있던 성경을 사실로서의 역사로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인이면 꼭 참석해야 할 여행이라 생각합니다. –*박희석〈군산 중앙성결교회〉*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것들이 심판의 흔적이라니.. 처음은 얼마나 좋았을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뵈옵게 하심에 정말, 정말 감사 드립니다. –*임정애〈군산 중앙성결교회〉*

눈으로 직접 그 증거들을 확인 하면서 참으로 경이로웠고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김정미〈온누리교회〉*

인간의 지혜만으로 설명 할 수 없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정국〈온누리교회〉*

온통 진화론의 패러다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조차 잘 모르고 살았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믿고 있었는가 뒤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염현주〈청지기교회〉*

"바로 이거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증거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유경〈예수 마을교회〉*

성경을 기반으로 연구 방향을 잡아야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그 길 밖에는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구주현〈영안교회〉*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 갈지에 대하여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태현〈서울 성결교회〉*

내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를 통하여 물려받은 믿음 감사로 전하겠습니다. –*최혜영〈인천 송현성결교회〉*

진화론을 그냥 배척 했었습니다. 이제는 진화론이 없던 빈자리를 하나님의 창조론으로 채우고 돌아갑니다. –*이은혜〈인천 송현성결교회〉*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이번 여행 내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정은〈온누리교회〉*

원하던 것 보다 넘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계시의 비밀이 활짝 열리고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임옥경*

창조의 평면도 그림을 현장에서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감격이었습니다. *–김성신〈온누리교회〉*

성경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성경 말씀을 진정으로 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읽고 암송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귀한 여행이었습니다. *–박정숙〈양광교회〉*

진화론적 사고 틀로 성경을 믿고 있었구나; 사실을 보지 못함에 그리고 전하지 못함에 놀랐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과 목회 방향이 구체화 됩니다. *–유성환 목사〈부여 수정교회〉*

그 패러다임에 깊이 갇혀있음을 깨닫고 놀랐으며 이번에 그 안에서 확실히 replace 되었음을 선포하며 감사, 감사 드립니다. Rejoice! *–조성미〈서울 온누리교회 서빙고〉*

말씀으로 믿었던 느꼈던 하나님을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현숙〈서울 온누리교회 서빙고〉*

그랜드 캐년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얘야, 이것이 내 상처란다.." *–윤경애〈미얀마 선교사〉*

어설픈 진화론의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고 배우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성현〈서산 온누리교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이 감격 그 자체입니다. *–박성혜〈부론 감리교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나의 존재에 대해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느끼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종은〈온누리교회〉*

진실로 살아계신 주님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윤현규〈온누리교회〉*

하나님이 좀 더 뚜렷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주은〈온누리교회〉*

삶의 기준과 방향성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임주영〈양재 온누리교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김민경〈양재 온누리교회〉*

적당히 세상과 타협 했던 신앙이 상대를 사랑하기에 단호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이미영〈양재 온누리교회〉*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2014 ACT Schedule*

2014년

2/10	두란노서원 (이재만), CA
2/18-19	신학생 집중세미나 (이재만, 최우성), CA
2/20-23	Liberty seminary(이재만), VA
2/24-26	창조과학탐사 (진새골), 이재만
2/24-27	창조과학탐사 (광명우리교회), 최우성
3/2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CA
3/3-6	창조과학탐사 (뉴저지 온누리교회), 이재만
3/9	주님의 영광교회 (최우성), CA
3/16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CA
3/17-20	창조과학탐사 (신학생), 이재만
3/23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CA
4/7-13	창조과학탐사 (창조과학 대전지부), 이재만
4/15-17	창조과학탐사 (라스베가스 하나교회), 김선욱
4/24-26	North Bay 장로교회(이재만), CA
5/2-8	창조과학탐사 (안산 동산교회), 이재만
5/14	포모나 인랜드교회 (이재만), CA
5/15-17	창조과학탐사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5/19-22	창조과학탐사 (지구촌 교회), 이재만
5/22-29	창조과학탐사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이재만
6/1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CA
6/2-11	창조과학탐사 (온고을 선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